

교회:

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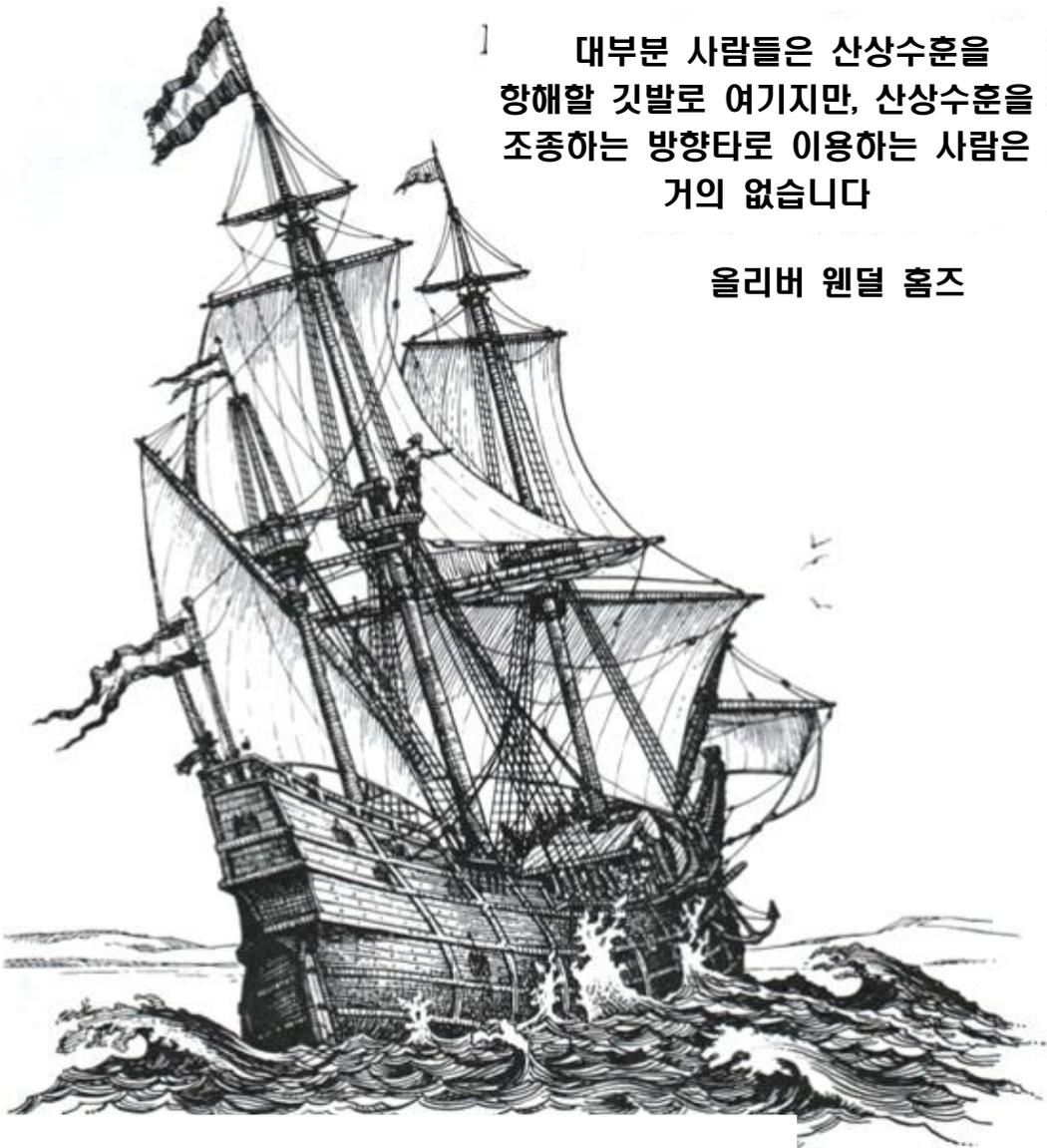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장년부 공과

제 12 권

1 대부분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향해할 깃발로 여기지만, 산상수훈을
조종하는 방향타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 할 것인가?

<청장년부 공과 제 12 권>

주제: 산상수훈(성도의 윤리강령)

공과	제목	쪽
제144공과	겸손	1
제145공과	공흠	3
제146공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	5
제147공과	그리스도와 율법	7
제148공과	구제	9
제149공과	금식과 기도	11
제150공과	하늘에 투자하라	13
제151공과	세상적인 염려와 하나님의 돌보심	15
제152공과	비판과 분별	17
제153공과	믿음과 기도	19
제154공과	황금률	21
제155공과	두 갈래길	23
제156공과	반석 위에 지은 집	25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를 구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친숙한 말씀 중 하나는 산상 수훈입니다. 산상 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할 열두 명의 제자를 택하신 후,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2권의 목적은 산상 수훈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에는 다양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를 뽑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2권 공과 본문에는 산상 수훈 말씀 외에 다른 성경 구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산상수훈의 주제를 더 강조하면서 각 말씀의 주제는 공과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공과는 겸손과 겸손의 영적 가치를 다룹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처음 다섯 구절은 겸손이라는 주제 이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12권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2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44공과 겸손

성경본문: 마태복음 5:1-5, 8:5-10 ; 이사야 29:19, 57:15

보조본문: 이사야 6:1-3 ; 로마서 12:3

요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누가복음 14:11)

크리스천의 삶에 필수적인 덕목의 하나인 ‘겸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생긴다. 겸손은 거만이나 자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꾸미거나 가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삶의 전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1.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 각각 어떻게 대하시는가?(약 4:6)
2.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을 집에 모실만한 자가 못된다고 말함으로서 겸비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겸비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라.
3. 빌립보서 2:3절과 베드로전서 5:5절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의 것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라.
4.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가?(약 4:10)
5.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다(막 12:31) 이 교훈과 겸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6.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경배와 존

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분이 보여주신 겸손 하나를 들라(마 11:29, 빌 2:5-8).

7.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눅 18:13) 또 성경은 육체를 따라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전 1:26)

8. 자신의 겸손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참 겸손이 될 수 있는가?

제145공과 긍 흘

성경본문: 마태복음 5:6-9,38-48,18:23-35

보조본문: 사무엘상 26:7-11

요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잠언 11:17)

긍흘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 속성이다. 그래서 긍흘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긍흘을 받지 못할 것이다. 긍흘은 동정을 베풀고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비록 공의가 처벌을 원할지라도! 긍흘은 가장 비천한 자에게도 도움을 베풀기를 바라는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 또 지극히 무가치한 자격 없는 자라도 그 품에 안고자 한다.

1. ‘긍흘’을 정의해 보라. 성경인물이나 주변 이웃에게서 긍흘을 베푼 자를 들라.
2.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긍흘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미 6:8).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들라.
3. ‘긍흘히 여기는 자가 긍흘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긍흘의 행위’로써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딤후 3:5).
4. 누가복음 10:33-37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식으로 긍흘을 베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라.
5.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부터 빛 독촉을 받은 종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6. 왕은 빛을 갚을 힘이 없는 종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죄인의 죄의 빛을 탕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 왕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라.

7. 큰 빛을 탕감 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조그만한 빛을 진 동료들 빛을 갇으
라고 감옥에 넣어 버렸다. 공흠의 반대이다. 겉으로 나타나든 않든 공흠의 반
대되는 태도의 형태들을 들라.

8. 당신이 왕이라면 무자비한 그 종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당신은 날마다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직장에서 공흠을 베푸는가?

제146공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

성경본문: 마태복음 5:13-16; 다니엘 6:1-28

보조본문: 요한복음 1:1-9 ; 사도행전 13:47; 빌립보서 2:14,15 ; 요한일서 1:5-9

요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에베소서 5:8)

물리적인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어 사물을 밝히 드러내고 온 땅에 생명을 주며 온기와 위로를 준다. 빛이 이처럼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부터 몰아내셨다(창 1:2-5). 빛이 없으면 피조세계는 죽음의 연속적인 상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빛보다 영적인 빛은 더더욱 중요하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말 4:2)라고 말한다. 영적인 이 빛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다.

1. 영적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1:1-9). 영적인 빛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 영적인 빛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명령(마 5:16)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 다리오 왕의 세 총리 중 수석 총리이던 다니엘은 자기 빛을 어떤 식으로 비추었던가?(단 6:3,4)
4. 두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할 틈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흉계를 꾸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5. 왕이 금령의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안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6. 다니엘의 빛된 삶이 왕의 마음에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였다. 다니엘에게 행한 왕의 말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7. 왕이 다니엘에게 거듭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특별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8. 다니엘이 순교적인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구출된 결과 그의 빛은 얼마나 멀리 퍼졌는가?

제147공과 그리스도와 율법

성경본문: 마태복음 5:17-20 ; 로마서 8:3,4 ; 갈라디아서 3:19-29

보조본문: 로마서10:4-9 ; 갈라디아서 2:16 ; 디모데전서 1:8-11

요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라디아서 3:24)

‘몽학선생’이란 헬라 원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어린 아동을 학교나 운동장으로 인도하여 주는 자를 뜻했다. 그러나 아동이 장성한 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몽학선생이 그 맡은 아동을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믿게 한다.

1. 모세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말하라(갈 3:19).
2. 율법은 어떤 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었는가?(딤후 1:9,10)
3.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속죄제물과 관련된 모든 제사의식들은 죄를 속함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레 8:15 ; 히 9:19-22). 이 의식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라(히 13:11,12).
4.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라.
5. 구약의 율법준수는 의식적인 희생제사들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갈라디아서 3:22-26절에 나오는 주요단어를 말하라. 이 단어가 율법시대나 은혜시대에서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를 말하라(합 2:4 ; 롬 1:17).

6. '의롭게 되다'의 뜻을 설명하라. 또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갈 2:16,3:24)

7.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롬 10:9,10)

8. 율법을 오해하므로 빚어진 결과를 하나 들라(행 10:28).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폐지되었는가?

제148공과 구 제

성경본문: 마태복음 6:1-4 ; 고린도후서 8:1-15

보조본문: 누가복음 6:38 ; 히브리서 13:1,2

요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언 28:27)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입의 십일조 이외에도 능력껏 혹은 힘에 부칠 정도의 헌금을 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감동을 자아낸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심한 핍박 때문에 궁핍했다. 상대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심한 가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거두어 보냈다. 이로써 그들은 자유와 관용의 풍성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바울은 이를 예로 들어 고린도 교회 역시 동일한 사랑을 보여 달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구제금 말고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재산을 분배하기도 하는 등 그들 중에서 아무도 궁핍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1. 성도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이유와 또 누구를 구제하여야 되는가를 말해보라.

2. 구제의 수요는 많고 그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때 구제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3. ‘의연금’이란 자선행위로서 일종의 선한 동정심의 표출이다. 성전 미문의 거지는 동정을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넬료도 이러한 종류의 선행을 베풀었다. 그는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하나 지어주었다는 전승도 있다.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도르가의 선행도 바로 이런 자선행위였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4.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낸 과부를 칭찬하셨다(눅 21:1-4).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적절한 헌금액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5. 헌금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영육 간에 받은 복들을 적어 보라.

6. 상기한 목록을 참고하여 당신은 영육 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7. 지금 세계는 가난, 굶주림, 온갖 질병들, 전쟁, 갖가지 범죄들로 요동치고 있다.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져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도와줄 방도를 말하라.

8. 마태복은 6:3절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

제149공과 금식과 기도

성경본문: 마태복음 6:5-8,16-18,17:14-21

보조본문: 이사야 58:1-11

요절: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요엘 2:12)

금식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그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의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끊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보통 간절한 기도가 따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셨다(마 17:21). 그때 제자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는 일에 실패하는 수모를 겪었었다.

1. 금식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을 때 그가 드리는 금식과 기도의 가치는 어떠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사 58:3-7)

2.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

3. 하나님 앞에 절박한 이유 때문에 금식한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면 금식하는 이유와 때에 관한 합당한 근거를 얻게 된다. 아래 성구에서 금식자, 금식이유, 그 응답 순으로 찾아 적으라.

에스라 8:21-23,31

느헤미야 1:4-11, 2:1-6

에스더 4:15-17, 5:1-3

4. 때로는 영육 간에 심한 압박을 당하여 금식기도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 금식해야 되는 때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과 모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훈들을 적으라(마 9:14-15,17:21).

5. 신자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할 때 마귀는 어떻게 나오는가?(단 10:3,12,13)

6. 욥은 큰 환란에 처했을 때 음식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았나?(욥 23:12)

7. 금식기도만 하면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해결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8.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목적과 결과들을 적으라(행 13:2-3,14:23).

제150공과 하늘에 투자하라

성경본문: 마태복음 6:19-21 ; 누가복음 12:13-21

보조본문: 마태복음 13:44-46

요절: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로새서 3:2)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인생이 그 평생에 해 아래서 행하여야 할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다. 그러나 땅엿 것은 그 무엇도 인생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 헛될 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전 2:3-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이 평생에 힘써야 할 참된 투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보물이 잇는 곳에 네 마음도 잇느니라(마 6:20,21). 그러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 두 경우를 비교하여 보고서 하늘에 투자하는 인생이 지혜로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땅에 속한 보화들 몇을 들라. 그 중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 보라.
2.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세상 보화들은 어떻게 되는가?
3. 땅에 속한 그러한 보화들이 그 소유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누구나 한동안은 기대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전 5:10)
4. 하늘의 보화들 몇 가지를 들라.
5. 하늘의 보화를 돈으로 살 수 없다면(벧전 1:18) 어떻게 해야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가?(벧전 1:19 ; 요 14:1-3 ; 말 3:16,17)
6. 누가복음 12:17절의 그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려고 했나?

7. 부자가 진짜로 마음을 써야만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8. 예수님은 그 부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과의 유사점을 묘사하시고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 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저의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적으라.

9. 오늘의 요절인 골로새서 3:2절의 뜻을 설명하라.

제151공과 세상적인 염려와 하나님의 돌보심

성경본문: 마태복음 6:25-34 ; 열왕기하 4:1-7

보조본문: 이사야 43:1,2 ; 빌립보서 4:6,7,19

요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인생길을 가다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염려에 빠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 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한다(벧전 5:7).

1.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 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 하나?”의 뜻을 쓰라.

2. 마태복음 6:26절은 하나님이 심거나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까지 돌보신다고 말한다. 같은 구절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 있는가?(참조 사 43:7 ; 요 3:16)

3. 예수님은 마태복음 6:28절에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들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4. 오늘 본문(왕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은 지혜롭게도 엘리사에게 고민거리를 가지고 와서 상의했다. 그런 태도가 지혜로웠던 이유는?

5. “이웃의 그릇들을 빌려 오라”는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한 여인의 아들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영적 속성들은 무엇인가? 또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유사성을 적으라.

6. 여인의 가족에게 일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체험이나 지식으로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적으라.

7. 마태복음 6:31절의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또 6:32,33절에서 발견되는 확신은 무엇인가?

8. 마태복음 6:3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 6:6-11 ; 엡 4:28 ; 살후 3:10 이들 성구들은 열심히 생활비를 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경고하는가?

제152공과 비판과 분별

성경본문: 마태복음 7:1-5,15-23 ; 로마서 2:1-3

보조본문: 누가복음 6:37,41-45,13:6-9

요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태복음 7:18)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적이 있는가? 그것은 작더라도 눈에 상처를 준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 드느냐?’고 주님은 경고하셨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보려드는 태도는 그렇게만 보려 드는 그 사람의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참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 17:10).

1. 오늘본문에 사용된 ‘비판하다(판단하다)’의 의미를 설명하라.
2.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은 엄격히 금하신다. 그 이유를 적어 보라.
3. 고린도전서 11:31절은 우리 자신에게 엄격히 하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신실하게 살핀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신자들이 장차 받게 될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5절에는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온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신을 말씀으로 비판하여야 되는가를 적으라.
4. 성경은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또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도 하였다. 타인을 그 열매로 분별할 때 그 사람의 특별한 동기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타인의 영적 상태를 꼭 살펴야 할 경우를 들어 보라.

5. 타인의 삶을 영적으로 점검할 때 그 점검 기준들을 들라.

6.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의 삶에 온전하게 혹은 부족하게 나타날 때 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어떠함을 보여 주는 것인가?(갈 5:22-26).

7. 지금까지 배운 비판기준이나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에게 적용하여 보라.

제153공과 믿음과 기도

성경본문: 마태복음 7:7-11,9:27-30, 요한일서 5:14,15

보조본문: 마가복음 11:24 ; 요한일서 3:22

요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복음 15:7)

기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는 지존자, 지극히 거룩하신 자, 전능하신 분 앞으로 기도자를 인도한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다(히 11:6).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서 뿐 아니라 행동으로서 끌어안는 것이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중보사역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들을 낳게 해준다.

1. ‘기도하라’고 격려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말씀을 적으라.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어떻게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2.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를 경우, 어떤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
3.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마 21:22). 이 요소는 항상 본질적인 것인가?
4.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막 11:22).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롬 10:17)
5.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를 적으라(마 9장).

6.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에게 “너는 가서 실로암 물에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신유의 기적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7.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8. 마가복음 11:24절, 요한일서 5:14,15절의 약속들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제154공과 황금률

성경본문: 마태복음 7:12 ; 누가복음 6:31 ; 민수기 12:1-13

보조본문: 로마서 13:10 ; 갈라디아서 5:14

요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

‘서로 사랑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의 삶의 한 큰 원리이다. 오늘 공과의 연구방향도 종종 ‘황금률’로 불리우는 요절 말씀과 관계된 것이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대 원리로서 이 원리대로 살면 사업관계와 가정생활과 모든 대인관계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말씀이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곧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누구나 황금률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1. 황금률의 ‘률’의 뜻을 설명하라.

2.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은 율법사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2:37-40절에서 대답하셨다. 오늘공과의 본문말씀들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들라.

3. 다음 성구들을 황금률과 비교하라. 그런 후 거기에 맞는 오늘의 상황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들라.

잠언 15:1

로마서 12:8

로마서 12:14

로마서 12:21

4.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황금률을 어겼는가?

5.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황금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갈 6:11)

6. 예수님은 황금률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사신 표본적인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 가야 한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욕하고 고난을 가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가?(벧전 2:21-23).

7. 동료의 모욕과 핍박에 대하여 우리는 취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승리 아니면 패배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가? 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8. 황금률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논박하거나 입증할 만한 영적 증거를 제시해 보라.

제155공과 두 갈래길

성경본문: 마태복음 7:13,14 ; 신명기 30:15-20 ; 시편 1:1-6

보조본문: 시편 37:1-11 ; 잠언 14:12

요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태복음 7:13)

인생에는 두 길만 있다. 의의 길과 죄의 길, 혹은 선의 길과 악의 길, 혹은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중간은 없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 경건자와 경건치 못한 자의 차이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의 차이이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나아간다.

1.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4)는 말씀 앞부분에서 한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한다.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을 쓰라.

2. 왜 좁은 길에서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가?(신 25:16 ; 사 59:2 ; 요일 3:8).

3.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타난다(갈 5:19-21). 이중에서 오늘날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 셋을 들라.

4.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5. 시편 1장은 두 길을 대비한다. 곧 경건한 길과 불경건한 길이다. 경건자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6. 바른 길을 끝까지 가려면 ‘헌신’이 필요하다. 헌신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7. 시편 1:1절에 나오는바 복 받고자 하는 자가 피해야 할 것 셋을 적으라.

8. 모세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 그 결과를 적으라.

제156공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성경본문: 마태복음 7:24-29 ; 고린도전서 3:9-15

보조본문: 로마서 2:13 ; 야고보서 1:22-25

요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 진술이 명확하다. 예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더라도 다 헛일임을 이 말씀은 비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로 나누인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1.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두 부류 중 비슷한 점들과 차이점들은 무엇 인지를 적으라(마 7:24-27).

2. 두 부류를 비교 대조한 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치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라.

3.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을 전부 그대로 믿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은 무시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들의 눈에 별로 중요치 않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가르침 몇을 적어 보라.

4. 비, 홍수, 폭풍이 인생에 닥쳐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바가 어떠한지 그대로 드러난다.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폭풍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오늘 본문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도가 인생의 출발을 견고히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6.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청중들의 반응을 적으라. 그들의 반응은 왜 그러했던가?

7. 지금까지 주님의 산상수훈을 집중적으로 배워 왔다. 당신은 듣기만 한 자였는가? 듣고 행한 자였는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감동받았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적으라.